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제15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3)

시작하는 말 : 이제까지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다각적인 사죄와 그러한 사죄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인격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임을 알았다. 이 과에서는 제사장에 대하여 연구 해보자.

1.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성소에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로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중보 하는 직무를 행하였다.**

[출 28:41]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레 4:26]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레 4:31,35; 5:6,10,13,16,18). 참고 성경 절들에 다 동일한 말들이 있다.

[민 3:1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속죄는 희생의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속죄 봉사를 해야 속죄가 되었다. 제사장은 속죄 봉사를 하고 아마도 속죄 선언을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래야 죄인의 죄가 확실히 용서되었다는 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속죄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2. **제사장들은 성소와 단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와 단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

[민 18:5]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히 9: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히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 속죄 봉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려진 것은 이미 공부하였다. 피를 성소에 들여가서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는 방법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단 사방에 뿌리는 방법이다. 이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하는 직무였다. 이때 제사장은 서서 봉사하였다. 그러나 이 속죄 봉사는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예표 하는 것일 뿐 실제적인 속죄는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다.

3. 제사장은 위에 말한 직무 외에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공중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도와야 했다.

[신 33:10]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겔 7:26]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레 13:13, 민 5:14,15 참고)

[말 2:5-7]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어늘.

[신21: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 제사장은 율법의 교사와 공중 예배를 인도하는 직임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재판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또한 심판자도 되었다.

4. 제사장의 이런 일들은 우리의 죄를 속하려 오신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무의 여러 면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1)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

[히 9:11-14]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

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롬 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 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2) 예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

[마 5:17,18]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13: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마 19:16-19]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 22:35-40]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눅 10:25-36]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위의 말씀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가르치신 기록이다. 예수께서는 주의 법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사42:21]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말씀에 교훈이라고 번역된 말이 토라이다. 여러 곳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이다.

3) 예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직무

[요 4:20-24]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 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4) 예수님의 판단의 직무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25:31-33]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5.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항상 섬긴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성소 참 장막 안에 항상 계

시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신다.

[엡 1:20]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히 8:1,2]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요16:8-1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성소의 구조로 설명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생축(牲畜을 끌고 성소 뜰에 가서 짐승을 죽이므로 죄를 회개했는데, 성령의 책망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성소 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된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함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 어렵지만 성소 기능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회개한 죄인의 죄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봉사를 해야 사유함을 받는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려야 한다. 그때 백성들은 제사장을 볼 수 없다. 그는 성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마당에 돌아다니면 백성은 속죄를 받을 수 없다. 즉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볼 수 없어야 그들의 속죄봉사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 확인 된다.

그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 십자가의 피는 있지만 그 피로 속죄봉사 할 제사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봉사를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하셨다.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지성소봉사를 통하여 완전히 처리 된다.

이 말씀은 성소구조를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흘리신 피를 뿌리시며 속죄봉사를 하신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항상 서서 섬긴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항상 수행하신다.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6. 또한 제사장들의 이런 직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직무들에 대하여서도 가르치고 있다.

1)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무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 1:5,6]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 13:15]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3) 예배를 인도하는 직무

[요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계 14: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4) 판단의 직무

[고전 6:2,3]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마 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계 20:4,6]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7. 오늘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 12:5,6]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출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계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 예수님은 성소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셔서 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 성소를 주신 목적을 이루신 것이다.

마치는 말 : 옛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된 백성의 직무와 신분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제사와 제사장의 직무에서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보았다. 참으로 제사장답게 성소 안에서 사는 사람답게 사는 일에 성공하자.